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기준과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규범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도덕 판단의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② 도덕적 명제의 진위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 ③ 선악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도덕적 관습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⑤ 도덕규범을 가치 판단이 배제된 경험적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상대방의 성(性)을 향유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행위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이지만, 오직 혼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남녀는 서로의 인격성을 상실하지 않고 성을 향유할 수 있다. 혼인은 출산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남녀가 쾌락을 전제로 성을 향유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

- ① 사랑이 전제된 혼인 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②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③ 인격성을 훼손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④ 성관계를 통한 생식적 가치의 추구는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⑤ 모든 성관계는 상대방을 대상화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 럼

최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3차원적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SNS 및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며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에서는 사이버 폭력, 사생활 침해와 같은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① 메타버스를 통해 얻게 될 경제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 ②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달리 모든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 ③ 메타버스의 등장은 기존 온라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 ⑤ 메타버스를 윤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

4.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치와 도덕의 영역은 분리되며, 외교 정책은 도덕 원리가 아닌 정치적 이해 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와 도덕은 합치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지닌 국가들의 연방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 있어야 하며, 영구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 보 기 >

- ㄱ. 갑: 외교 정책의 성패는 국익 증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ㄴ. 을: 영구 평화의 확립을 인류의 보편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
- ㄷ. 을: 국제 연맹은 주권적 권력을 지닌 세계 정부로 기능해야 한다.
- ㄹ. 갑, 을: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貴賤)의 구별이 없다. 그러나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천의 구별은 자기가 아니라 남에 의해 정해진다. 귀천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에 구속되지 말아야 하며, 만약 구속된다면 도에 크게 어긋나고 말 것이다.

< 사 례 >

취업을 준비하는 A는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게 되었다. 취업하는 데 외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A는 성형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美)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세요.
- ② 연기(緣起)의 깨달음을 통해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 ③ 외모를 가꾸기보다 인의(仁義)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세요.
- ④ 외모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함을 명심하세요.
- ⑤ 미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p> <p>을: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하다.</p> <p>병: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다. 그러나 형벌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형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확실성, 근접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p>
(나)	

- ① A: 형벌은 응보가 아닌 다른 선을 촉진하는 수단임을 간과한다.
- ② B, E: 인간은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의 크기는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모든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갑: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달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 질환을 치료하여 인류의 행복을 증진해야 합니다.</p> <p>을: 동의합니다. 다만 치료가 아닌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미래 세대에게 부모가 원하는 유전 형질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합니다.</p> <p>갑: 아닙니다. 미래 세대는 살아가는 동안 강화된 유전 형질로 인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p> <p>을: 강화된 유전 형질로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이러한 삶은 부모에 의해 계획된 삶일 뿐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옳지 않습니다.</p>

- 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유전 형질의 변화를 조래하는가?
- ②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③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 ④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 ⑤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이 존재하는가?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p>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변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그 사회의 자원 수준이 아닌 정치 문화이다.</p> <p>을: 원조의 목적은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다.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p>

-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강제력의 사용은 정의롭다.
- ② 갑: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을: 원조는 원조 결과와 무관하게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 ④ 을: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조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이상적 담화 상황은 담론장에 외적인 우연적 요소들이 개입되거나 담론 참여자가 어떤 유형의 강요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담화 상황을 위해서는 출입의 공공성, 평등한 권한, 표현 행위의 진실성, 입장 표명의 비강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담론 참여자는 오직 보다 나은 논증을 통해서만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p>

< 보 기 >

<p>ㄱ. 담론 참여자 중 대다수가 동意的한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ㄴ. 담론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ㄷ.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ㄹ. 담론 과정에서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p>갑: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는 우리를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만들고,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p> <p>을: 기술은 수단으로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기술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가이다.</p>

< 보 기 >

<p>ㄱ. 갑: 기술의 본질을 삶에 유용한 도구로만 규정해야 한다. ㄴ. 갑: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할 때 인간은 기술에 종속된다. ㄷ. 을: 기술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ㄹ. 갑, 을: 기술의 활용이 가져올 영향을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p>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대지는 토양과 식물, 동물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대지 윤리는 인간과 대지 그리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동식물과의 관계를 다룬다.

을: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인간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ㄴ. B: 이성의 유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ㄷ. C: 인간은 무생물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ㄹ. D: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도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다양한 문화의 존중은 사회 결속으로 이어진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위해서는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해 기존의 사회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 형성 및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나) 단일한 문화의 형성은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 소수 집단의 문화 존중을 이유로 소수 집단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은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수 집단은 그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 사회의 문화로 편입되어야 한다.

X: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정도
 Y: 소수 집단의 문화가 기존 사회의 문화로 동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Z: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결속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자연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해야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			✓	✓
국가는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	✓	✓	
국가는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삶과 죽음의 번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명(無明)에 덮여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근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을: 기(氣)가 모이면 태어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쉬게 하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다.

- ① 갑: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명에 도달해야 한다.
 ② 갑: 고통 없는 삶으로 윤회하기 위해 만물의 실상을 자각해야 한다.
 ③ 을: 삶과 죽음은 분별할 수 없는 자연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④ 을: 기의 변화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삶과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⑤ 갑, 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애도해야 한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호혜성 관념을 포함한다. 개인 간의 차이, 재능의 다양성, 주어진 재능 성취 수준의 차이는 상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을: 현재의 모든 분배 상황이 취득, 이전의 정의 원리에 의해 생성된 것은 아니다. 만약 과거의 불의(不義)가 현재의 소유 상태를 여러 방식으로 형성했다면 우리는 소유물에서의 불의를 교정해야 한다.

- ① 갑: 자연적 재능의 불평등한 분포는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② 갑: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하다.
 ③ 을: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이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⑤ 갑, 을: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공리성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각각의 행위란 개인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을: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를 규정한다.

- ① 갑: 공동체의 이익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 ② 갑: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보다 동기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③ 을: 행위자의 성품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을: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은 행위도 도덕적 행위일 수 있다.
- ⑤ 갑, 을: 윤리적 의사 결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17. 갑 사상가는 부정, 을 사상가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동정심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가 윤리적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사고와 언어는 예술의 도구이며, 악덕과 미덕은 예술의 재료이다.
 을: 훌륭한 예술 작품은 몸에 긴장을 안겨 주는 바람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 또한 훌륭한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것을 대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친해지고 선한 것과 닮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 ①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인가?
- ②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예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 ④ 예술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하는가?
- ⑤ 예술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가?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을 결정할 때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법과 민주주의에 가할 해악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청원 행위이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도덕 원칙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위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 행위일 수 있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원칙을 존중하며 시행되어야 한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며, "자기가 먹은 음식이 곧 자기가 된다."라는 말처럼 먹는 행위는 자기 본질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먹는 행위는 음식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음식에 따라 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행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먹는 행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 보기 >

- ㄱ. 먹는 행위는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먹는 행위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
- ㄷ. 먹는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ㄹ. 먹는 행위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대인(大人)의 일이 따로 있고, 소인(小人)의 일이 따로 있는 법이다. 군주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恒産]을 마련해 주어 반드시 위로 부모를 충분히 봉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로 처자식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 선왕(先王)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禮義)를 만듦으로써 등급을 나누어 천자(天子)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다. 군주는 바른 정치를 위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 보기 >

- ㄱ. 사회적 역할의 분담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 ㄴ. 백성의 경제적 안정에 힘쓰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다.
- ㄷ.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은 육체노동에도 탁월해야 한다.
- ㄹ.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